

현실 그대로가 여여한 부처님의 법이자 우리의 법!

21면에서 계속

우리 중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허리띠를 안 맨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버스 안에서 살면서 이 버스가 돌아간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어디로 돌아가고 돌아오는지 제자리걸음을 하는지 그걸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돌아서 오는지 어디로 돌아가는지 생각해보셨습니까? 그것도 또한 돌아오고 돌아온다는 거는 아는데 어디로 어떻게 해서 돌아오는 거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한 이름 해서 연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닌데도 그냥 이름만 그렇게 돌아온다더라 그렇게 돌아간다더라 이런 것만 알지 내다보지라도 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우물 안에서 놀기보다는 좀 더 우주세계를 내다볼 수 있고, 우주세계를 들을 수 있고, 과거세계와 미래세계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인생살이를 할까. 얼마나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을까. 밥을 굶는다 하더라도 하늘을 쳐다보고 웃을 수 있는 진짜 자유인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어느 누구도 나 아님이 없기 때문에 공양을 바치는 사람이 그냥 갖다 줘도, 거지가 알아다줘도, 어느 누구도 인연에 따라서 밥을 굶어서 배에서 쪼록 소리 나게끔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즉, 자유인의 삶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오는 대로 배가 부르게 그냥 그저 자기 몸뚱이가 어떻게 되든지 막기만 하는데 그게 아니죠. 자기가 공덕이 많아서, 베풀어져서 그만큼 들어온다 하더라도 먹는 거를 또 제재해서 아주 알맞게 먹어야 되겠죠. 목적지를 가려면 알맞게 싣고 가야지 운전자 머리 위에도 그냥 잔뜩 싣는다면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듯이, 우리 삶이 바로 이런 것에서 모두 벌어지는 문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세상의 보물을 다 주워 모아서 너를 졸 테니 너 이걸 가지려느냐, 근본 금강석 같은 보배를 가지려느냐 한다면 어떤 것을 가지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부자도 으스스하고 잘살아보기 위해서는 아마 그걸 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한 철인 걸요. 한 철요. 욕심 많은 사람은 한철 그거까지 가지고 눈에 뜨이지도 않습니다. 한 철 지나면 그냥 다 없어질 거를, 자기 몸뚱이까지도 없어질 거를 왜 그걸 택하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히 내가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먹을 수 있고, 영원히 쓸 수 있고, 영원히 갖출 수 있고, 영원히 자유스러울 수 있고 그런 길을 택하지, 고작 한 철 잘 먹고 잘 자는 거를 택하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로 다 돌아다녀보니까 전부 타의에서 구하고 기도할 필요요. 정말 기도 소리라는 게, 너무도 기도라는 것에 실망을 해서요, 너무도 정말이지 기가 막힌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때로는 영계성이라는 때로는 뭐 그것들을 하나 붙들고 영

계성의 연구를 하질 않나, 또 그렇지 않으면 철학이라고 하는 거를 붙들고 늘어지질 않나. 이것은 이것저것을 하나만 붙들고 늘어지는 거야, 바깥으로 말이에요.

이 안의 내 보물은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켜 바로 기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둥은 움직여지지 않으면서도 그 수많은 세계를 다 대처하고 배려하고, 그 능력이 자동적으로 배출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기둥이 하나 붙은 그 수레가 수억 개로, 수만억으로 돼 있고, 보살이 수십억으로 돼 있던 애깁니다. 보살은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는 철학도 붙어 있고, 의학도 붙어 있고, 과학도 붙어 있고, 천문학도 붙어 있고, 하하하, 이게 모두가 여기에 다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모조리 요거 하나만 연구해서 내가 잘 깨지한다면, 예를 들자면 풍뎡데기가 풍이 자기한테 달려 있다는 거를 알면 진짜로 믿어질 겁니다. 자기 중심이 자기 몸뚱이가 있는 거지, 자기 몸뚱이가 없으면 중심도 없고, 중심이 없으면 몸뚱이도 없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까닭에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아무렇게나 그냥 자기 생각 대로 그냥 나오는 대로 막 말을 해버리는데 그렇게 한다면 아니 됩니까. 항상 나를, 내 키에 재지 말고 내 그릇에 재지 말고 상대방의 그릇에 따라서 대지를 해나가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잣대를 내 키에다 재면, 내 방식대로 내 그릇대로 상대방을 생각한다면 항상 모가 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그릇에 따라서 나도 그 그릇이 돼준다면 항상 등근 겁니다. 등근데요. 세상에 나서 얼마나 이 몸을 가지고 살려고 그렇게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섭섭하게 하고, 남을 이익하지 못하게 하고, 앙심을 먹게 하고 그럴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한테는 무슨 이익이 있느냐 하시겠지만 만물이 다 한마음이 돼서, 내 한마음이 돼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데, 예를 들어서 애깁니다. 길에 가다가 물매를 맞게 됐는데 그냥 내 한마음 식구가 모두 우르르 달려나옵니다. 그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돼서 모습이 없는 모습들이 달려나오는 거죠. 달려와서 '아이쿠, 내 몸 죽인다' 하곤 내 몸 살려나라고 그냥 모두 살리는 거죠. 그러니 얼

디서 사는데?' 뭐 그런 걸 다 적어가지고 가더라도, 틀림없이 취했을 시켰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하하. (대중 박수)

이것이 우리가 그냥 우연이고 보통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일 같지만, 그 하나하나가 빠져린 문제들이 다 오고 얼마나 빠져린 문제들이 안에서 일어나는지 여러분은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고도 살아나기하면서 그런 거를 당해 보지 않은 분들은 말로만 듣고 그저 그런가보다 했지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기를 때 용돈 많이 주지 마시고, 허허허, 아주 모자라게도 주지 마시고 너무 넘치게도 주지 마세요. 그리고 겉으로 쓰다듬고 예쁘다고만 하지 마시고 속으로 항상, 그저 겉으로는 핼개쳐 놓는 거와 같아도 부드럽게 말해주고, 부드럽게 섬겨주긴 하지만 항상 집착을 두지 마세요. 집착을 하면 그건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큰일을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걸음을 걸어가 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빛을 내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가난한 집

도가 되고 또 활용을 해서 이 세상에 보람 있게 나와서 잘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사업을 이끌어가지는, 그렇지 못하면 이런 게 있죠. 자식들이 잘못해 놓으면 부모가 회사 경영이라든가 정치라든가 이런 거 하는 데에 많이 연결되죠. 몸쓸 일을 했다면 아이고, 모가지까지도 날아갈 수가 있죠. 부모가 잘못해도 자식이 그렇고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가 그렇습니다.

이 도리에서 보면 대대로 그렇습니다, 대대로 말입니다. 그게 유전성입니다. 인과로 인해서 유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전성 세균성 업보성 이 되는 거죠. 인과성 영계성, 이 문제가 어떻게 오느냐? 나는 현실에 정신분열증을 앓는 사람을 많이 볼 때 '어허, 저것은 아무 때 인연에 이렇게 이렇게 살생을 어떻게 어떻게 저질렀구나. 하나 만이 아니라 수많은 것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식들마다 저렇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자기 자신과 식구들이 한데 합쳐서 지금 녹음이 되고 입력이 돼서 팔자 운명대로 나오는 것을 거기다가 되풀이해서 그 입력을 없애는 공부를 하시라 이겁니다. 그거는 그 자리에서 나온 자리로 다시 입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업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대손손으로 내려갑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까. 그게, 영계성이든지 유전성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없애려면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되풀이해 놔야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데도 모르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대중: 예, 배중 웃음)

▲스님: 영계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내보면 참 가난하고 이를 데 없이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를 못 다니는가 하면, 공부하기 싫어서 못 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안 해서 부모들이 속을 썩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다 인과성이며 그게 업보성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왜 공부하기 싫겠습니까? 자기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속의 업식이 다 '싫어해라, 싫어해!' 그런 해를 뿌려서 '하고 자꾸 하니가 거기 따라서 그냥 더불어 같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식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몸속이 다 업식이거든요. 악업 선업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다 없다 이라는 겁니다. 자기한테 콩치도 붙어 있고 자기한테 진땀물도 붙어 있고 자기한테 모두 벌레도 있는 거지, 다른 데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진땀물에 속지 말고 그 콩치에게만 집중해라' 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오니까 자기 마음에서 진짜 나오는 건 줄 알고, 전부 이게 나쁜지 좋은 건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막 저지르는 것뿐이죠. 물론 생각해보라고 하겠죠. 그런데 잘못되게 하는 그런 쪽의 업식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로 기울어질 수밖에요.

(다음 호에 계속)
95년 6월 19일

영원히 내가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자유스러울 수 있는 길을 택하지
고작 한철 잘 먹고 사는 길을 택하겠습니까!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자기 보배의 맛을 모르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마가 들었는데 개천을 건너려니까 어디를 뛰어 어떤 잘 건너릴 수 있을까 하고 위도 보고 아래도 보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뛰어가서 무조건 넘든지 좁든지, 빠질 거든지 안 빠질 거든지 그냥 뛰니까? 안 그러죠? 부처님께서서는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상세계를 보고 하세계를 보고 중도(中道)를 지켜라, 중도를 지키므로써 중용을 하게 된다, 중용을 하게 됴므로써 모두가 종자를 제대로 찾을 수 있고, 제대로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는 거는 무조건 뛰어가서 건너질 말고, 아래 위를 봐서 잘 생각해서 내가 뛰어아 된다 하는 것을 언제나 (가슴을 짚어 보시며) 굴러서, 안에도 굴러고 잘 보고 안에도 굴러서 뛰어라 이겁니다.

이 뛰는 것만 가지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일체 만법 여러분이 굴러고 작용하고 돌아가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람이 살다 보면 극한 문제가 있어서 안에도 굴러지 않는다면 분기가 나서 분대로 막 말을 해버립니다. 말을 해버리면 그 말을 다시 주위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굴러다 보면 '주인공! 너만이 그러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아!' 할 때에 벌써 마음은 가라앉아서 순서 없는 말을 내뱉을 수가 없습니다.

마나 깨운다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이 자기 보배의 맛을 모르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안양월 가다가 보니까 싸움이 났는데 무슨 싸움인가 하고 이렇게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지 말을 쓴 아주 웃이 납부한 청년인데, 청년 다섯이 그냥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 주지 않으면 주지 않겠나? 지금 우리 어머니가 병환이 나서도 내가 그 돈을 못 주고 있지 않아." 하는데도 그냥 "이 새끼 돈 내놔!" 하고는 그냥 때리거든요. 내가 내려다보다가 아, 참 기가 막혀요. 세상사는 게 저렇게 살고 저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불국토를 가져오기는커녕 악다구니 마구니 종자만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심스러워서 그거를 좀 내가 뱉죠. 부처님이 되게끔, 부처님 법신(法身)이 되게끔 했던 애깁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난데없이 노인 죽에도 안 가는 한 사십 먹은 분이 쳐 오더니 "왜들 이래? 돈이 없어서 못 주지 않으면 주지 않겠나? 누군들 다 그렇지, 너도 돈 없어봐라." 하면서 그냥 막 헤어지게 하니가 다 순순히 말을 듣고선 가더라고요. 가고 나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어, 그렇게 그래. 어머니가 아파서 그저 그렇게 했어?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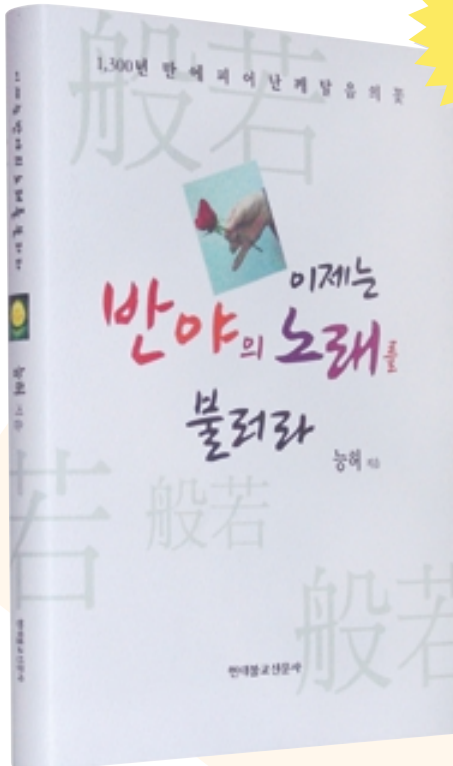
아들은, 손도 쓸 수 없는 아들들은 그래도 스님께 말씀만 드리고 가면 다 좋은 데로 떨어졌는데, 뭐 그 미군들하고 이라는 거 뭐죠? 군인 가는 거 말이에요. 그런 데로를 떨어지고 병원으로 떨어지고 가까운 데로 떨어지고 이리는데, 부모들이 손을 써준 아들들은 다 잘됐다 하더라도 다시 못 됐고, 또 꺼내서 잘 해냈는데 일을 저지르고 자기가 스스로서 빛을 못 내고, 또 멀리 그냥 좋지 않은 데로 떨어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를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스님,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하면서 "정말 그 도리를 가르쳐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울기까지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당신이 그렇게 즐겁고 잘 믿고 가면 동시에 어디가 좋으나 하면 조상도 좋고 자녀들한테도 좋으니가 그 즐거운 눈물은 아껴두라고요. 그래서 이 도리를 꼭 믿고 가야 되고 실천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을 할 줄을 몰라서 지금 그러는 데요. 이 조상이 잘해나갔으면 자식도 잘됐다 겁니다. 그런데 조상이 잘못했으면 자식도 거기 한 줄에 꿰어 있기 때문에 잘 안됩니다. 그 업보가 같이 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자식이 잘하면 부모가 연결이 돼서, 조상들이 잘 천

▶ 전국 서점 또는 '온라인 여시아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덕산학발화(德山托鉢語)와 파자소암(破子擔庵)의 두 공안을 다 통파했으니 내가 인가를 안할 수가 없어 눈 밝은 사람은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당당한 대장부라네. 자네는 재가자로서 1,300년 만에 확철대오의 꽃을 피운 것이네" - 정일대선사

바라밀선원장(능허)의 구도여정 그리고 깨달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온 까닭은?



1,300년 만에 피어난 깨달음의 꽃 이제는 반야의 노래를 불러라

불교의 진면목은 체움이 아니라 비움에 있으며
배움이 아니라 배울 수 없음에 있으며
가르침이 아니라 가르칠 수 없음에 있으며
언어 문자가 아니라 언어 문자가 끊어짐에 있으며
지식이 아니라 지혜에 있으며 얕이 아니라 깨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화경에서는, 불법은 생각이나 분별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오직 경성 성불한 부처만이 알 수 있음을 설했던 것입니다.
모든 부처와 조사가 한 법도 사람에게 주심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중요요이 스스로 믿고
스스로 긍정하며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닫게 할 뿐입니다.

어디선가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낙엽 하나가 내 발 앞에 떨어졌다.
바로 그 순간,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었다.
큰스님께서 "보려고 하면 힘들다"고 하신 뜻이 하나로 통해지면서
눈길에 별뿔 누워버렸다. 밤하늘 밝은 달을 쳐다보니 고향땅에 도착한 것이 분명했다. 온몸에 맑이 흘러도 모르고 있다가, 찬바람에 맑이 식어지자
추위가 닥쳐왔다. 그제서야 반씩 정신이 들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는 천하에 부처님과 조사들도 나를 두 번 다시 속일 수 없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힘차게 소리를 질렀다.
"조주어! 천 년 사람살이 오늘 나에게 들켜 버렸구나!"

- 법문 중에서

- 본문 중에서

능허(能虛)거사 지음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양장본 / 238쪽 / 값 12,000원

바라밀선원 전화 055)314-0116,8